

새로운 계간 <문화예술>을 발행하며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이 이번 호부터 월간에서 계간으로 옮기면서 체제와 편집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1974년 5월 <문예진흥>이란 이름으로 창간된 후 서른두 해 동안 322의 지령으로 역사를 두터이 해오면서 일궈온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의 틀과 모습으로 맞춰 바라보며 생각하기 위해 간기와 편집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문학으로부터 연극과 무용, 음악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각 장르에 대한 전문지의 간행이 활발한 것을 반가워하면서도 그 모두를 아우를 종합 예술 저널이 여전히 의외로 미흡하다는 점은 안쓰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장에서는 예술의 전반, 예술 장르의 경계넘기 혹은 가로지르기, 예술의 울타리 밖과 아래에서 일하기와 같은 범-혹은 초-예술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르의 좁은 울을 뛰어넘는 큰눈의 시각과 그 갖가지들을 함께 받아 안아주는 열린 태도, 넓게 대조하고 비교하는 비판적 사유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됐는데도 그럴 자리가 드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이 더욱 귀하게 보이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우리의 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정보·의견·비평을 모아 엮는 잡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저널 작업은 전문 장르 예술지들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모으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월간지 혹은 사이버 정보들을 통해 활발하게 소개되는 예술 활동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폭 넓게 검토하겠다는 우리의 의욕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매달 숨차게 잡지를 편집하는 것으로부터 긴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널리 다른 것들과 견주며 그 뜻을 가리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화를 따라 여유 있게 사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잡지가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변화만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접근과 의식의 정리, 그리고 글의 성격이 더불어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문화예술>이 계간으로 변하면서, 검토할 대상에 대한 진중한 판단과 그것들의 수용을 위한 폭넓은 이해, 그것들에 가하는 깊은 해석 등 신선한 편집과 훌륭한 집필,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제작으로 함께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이런 변화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환에 맞물리는 변화의 한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이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 편집위원들과 실무 담당자, 그리고 제작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정책과 현실, 지원과 성과의 문제로 떠안아 고심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에서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사유와 이해, 해석과 판단, 정보와 접근법들을 이 잡지의 제작에 담아낼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와 충고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병익